

懷舊
爾寄
送別

杜
讒
卷二



尋訪

分類杜工部詩卷之二十二

晦日尋崔戡李封

朝光入甕牖尸寢驚弊裘為甕牖也 | 以甕口也

에寢不尸니라 ○아침비치듯부우리로호
창의들어늘주근다시자다가헌갓옷두의

은셔볼라 起行視天宇春氣漸和柔하늘러거러

니분氣運이漸漸溫 興來不暇懶하늘호호보 今晨梳我

頭興이오매내머리론비소 出門無所

待徒步覺自由自由는猶自得也 | 此는
言車馬僕從고하오아거

러 只은 조초도 날시라 ○ 門의 나기 들을 杖
거시 업스니 거러 터 自由호물 아로라

慕復恣意免值公與侯 도 두 랫 대 디 피 佐
放恣히 호니 公

과 侯를 맛나 晚定崔李交會心真罕儔 늘 거
崔李

와 사 피 요 문 一定 호니 只은 아 每過得酒傾
도 디 眞實로 빠기 드므도다

二宅可淹留 의 양 디 나 가 스 를 기 우 러 어 스
문 어 두 니 두 지 본 어 루 이 으 려

즉 은 喜結仁里權况因令節求 論 語 에 리 스
이 爲 義 라 호

다 唐이 以 正 月 晦 日 爲 令 節 은 나 라 ○ 卒
厚 호 只은 晷 즐 기 음 交 結 호 문 及 노 나 호 문

며 豆 호 時 節 言 因 은 李生園欲荒舊竹頗脩
야 來 求 호 이 在 터

屋憂

此上傷今俗薄多亂也 上○古賢葛天氏斗百姓은

남금니시르문반
至今阮籍等熟醉為身

言事_{阮籍}이值天下危亂_{阮籍}醉飲不與世

제니르리阮籍斗히니기술醉威鳳高其翔

長鯨吞九州 威鳳은鳳之有威儀者 一라上

史言니리○威鳳은노피늘어는地軸為之

翻百川皆亂流 喻天下之亂 다○地軸이

이스리다 當歌欲一放淚下恐莫收 늘개블

尋往也 一라 〇 여러 지 비 디 나 가 면 키 를 스

랑 호 니 호 번 밤 더 근 뒤 노 지 최 프 쓰 른 드 시 업

소 蘇侯得數過歡喜每傾倒 나 蘇侯 는 조 디

라 蘇侯得數過歡喜每傾倒 나 가 들 득 호 야

깃 든 거 리 다 양 도 복 可 憐 人 呼 兒 具 梨 棗 仁 可 許

대 초 미 르 다 아 히 불 러 비 와 獨 醪 必 在 眼 盡 醉

攄 懷 抱 니 호 린 수 리 반 드 니 는 비 잇 는 紅 稠 屋

角 花 碧 委 墻 隅 草 오 분 거 하 니 는 집 但 罷 고 지

프 리 親 朋 縱 談 詭 喧 鬧 慰 衰 老 衰 老 自 謂 親

로 다 親 朋 縱 談 詭 喧 鬧 慰 衰 老 衰 老 自 謂 親

호 버 디 말 숨 과 戲 詭 호 문 〇 장 호 야 况 蒙 露

서 수 우 위 려 는 그 니 들 慰 勞 호 는 다 况 蒙 露

호 버 디 말 숨 과 戲 詭 호 문 〇 장 호 야 况 蒙 露

서 수 우 위 려 는 그 니 들 慰 勞 호 는 다 况 蒙 露

호 버 디 말 숨 과 戲 詭 호 문 〇 장 호 야 况 蒙 露

澤垂糗粒或自保謂蘇端이遺南以資糗也

우물니부니어글미 妻孥隔軍壘撥棄不擬

道南의妻子一時在三川하나라수因飲酒

歡樂而欲忘妻子也 一라○거집과子息

夏日李公見訪

遠赫暑氣薄公子過我遊연수프레더잇氣

貧居類村塢僻近城南樓南居

在長安城南樓而有似村塢也라○가난

호사농촌이두들고하리
僻호미城

函深타 水花晚色靜庶足充淹留 水花 蓮花 一 卽

○ 드 드 고 지 나 췌 비 치 寂靜 하 니 거 의 足 預 리 손 어 붙 우 물 이 거 스 로 치 오 리 로 다

恐樽中盡更起為君謀 시미리樽人 가 는 뒷 거

니 리 그 드 為 하 야 하 하 노 라

有客

幽棲地僻經過少 老病人扶再拜難 幽深히

히 偏僻 하 야 디 나 오 리 처 그 니 히 고 病 하 야 사 리 디 위 차 바 실 시 다 시 절 호 이 어 렵 도

다 豈有文章驚海內 謾勞車馬駐江干 干 涯也

來訪上句이라○어느잇는文章이海內잇사○

물놀래리○속절○업시車馬를○竟日淹留

佳客坐百年○應獨腐儒餐○나리○自謂

머므러아름다운소니안갓는니百年에莫

嫌野外無供給乘興還來者藥攔○來訪也

라○드러박기셔반좁는것업수물아
첫디말오興을타도로와藥攔은보라

客至

舍南舍北皆春水但見群鷗日日来○집집압파

다보릿드리로 소니 른 곧 여 기 花徑不曾緣

客掃蓬門今始為君開 뜻소 비러 덧노 김 흘 일

아니 하 다 니 다 북門을 오 놀 비 盤餐市遠無

無味樽酒家貧只舊醅 제盤애 다 모 차 바 니 러

야 시 업 스 니 樽 엇 수 른 지 비 가 난 肯與隣翁

相對飲隔籬呼取盡餘盃 다 이 우 젓 한 아 비 와

구 를肯 許 하 연 물 흥 즈 음 처 부

嚴中丞枉駕見過 嚴武 1 라

士詩卷之三十一 六

元戎小隊出郊坰問柳尋花到野亭

元戎出指嚴中

丞○元戎의 저 근 隊卒이 郊坰으로 오니 버드를 부르며 고졸은 자미했亭子

道合東西瞻使節地分南北任流萍

時예武為東西兩川都節制○다甫一在蜀 合야望長安則為南北이니라○州司東西

하모니使節을 보리로 다하히南北을 논 하니 홀티드니 논 말안호문드런히너

扁舟不獨如張翰皂帽應兼似管寧

이隱下仕常著皂帽○나라此上皆南一自 謂라○저근비논호문로張翰은恨아니

라거문곳가큰당당이寂寞江天雲霧裏何 管寧은호미兼호도다

入道有少微星

少微星正一名處士星이니甫一自謂라○寂寞호마

하하雲霧人소개어느사리미少微星이있다니르던고

嚴公仲夏在駕草堂兼携酒饌得寒字

竹裏行厨洗玉盤花邊立馬簇金鞍

대습개터맛

노브어비허正盤은잇스니又非開使者

徵求惠自識將軍禮數寬

顔閨이守陋間

徵之호니라此호言嚴公이親來訪也

非如魯君之遣使徵之나라○使者一블리어두를從리호開係티아니호라百年地

僻樂門迥五月江深草閣寒

僻 百年에 僻히 齒
樂門이

가 只 라 고 五 月 에 마 리 다 미 看美漁舟移白

日老農何有整交權言嚴公이 美漁舟가 아
以畫白日也 一 라 老農

은 甫 一 自 謂 一 라 〇 고 기 잡 노 비 늘 오 물 보
노 라 亨 昨 自 日 이 을 가 구 碌 亨 신 란 디 만 덩

늘 근 티 름 짓 고 노 모 르 섯 거 시
이 什 서 르 즐 고 물 다 亨 리 오

王十七侍御掄이許携酒至草堂이 其

奉寄此詩야便請邀高三十五使君야

同到亨 노

老夫卧穩朝慵起白屋寒多暖始開

슈미편안하야아차리개을이니로니새江 지비이위할지덥기아이로서여노라

鶴巧當幽徑浴隣鷄還過短牆來

히幽深호길늘當하야沐浴호고이우 鳥호工巧 제물고도로너른다문디나오는다

屢許携家醞皂蓋能忘折野梅

호二子石이皂蓋朱幡이니指使君호나리 〇繡衣니브니조지빛술가저오를詩호

니메기문蓋가지닌能히戲假霜威促山簡 미했梅花것구물니즐가

須成一醉習池回

習池호見前註호나야 借侍御霜燕之威호야

督使君의 來遊習池也 一니習池 止比草堂
言다 ○노드스 霜威를 비리山 簡을 비아
醉니 모로 매習池에 흐빈
醉코도 라가 몬 일우라

王竟携酒高亦同過共用寒字

卧病荒郊遠通行小徑難 病言야 누엿노기
친히어 렴도다 故人能領客携酒重相看 故

이能히 소느 거느 려슬가 自媿無鮭菜空煩
저다시 와서 르보느 다

御馬鞍 鮭菜 魚菜總稱 이라 ○鮭菜 업수
문내 붓그 리노 니 몬기 르 다 벗기어

스로 몬흐 갖어 移時勸山簡頭白恐風寒 甫註

스리이 호라

高一每云汝年이幾小오且不必小於我一
라고니此句止戲之也一니라○時刻이음
드록山簡은늘勸하노니어리
설시부곡미서늘흔가전노라

徐九少尹見過

晚景孤村僻行軍數騎來

唐이以少尹으로
爲行軍長史이라

僻○나짓회비체외로원○은히出交新徒有

喜禮厚媿無才

새사피요애호갓깃부미
실부니로다날러브러禮數

수一문거우니지조업賞靜憐雲竹忘歸步月

臺

寂靜호물賞玩하야구루엇기
고寂靜호물賞玩하야구루엇기
리가물나저돈비친臺에서건나
를憐愛하

何當看花藥欲發照江梅
復來賞梅也

라○어느저기꽃부리론와보실고다
뒤때비취엇는梅花)드프저하다

范二負外邀吳十待御
郁特在駕闕展

待聊寄此作

暫往比隣去空聞二妙歸
二妙는指范吳二

가몬이우제가노라갯다가호갯
二妙)왓다가도라가다드로라幽棲誠簡

略表白已光輝
言今象在駕來訪호니表老

호사논사하진실로簡略호니
는기센거기호마빛나도다野外貧家遠

村中好客稀 드러 못 바피 가난 호지 비어 니리 論

文或不愧重肯款柴扉 날와 큰 議論 호 들 시

면 다 시柴扉 두 드
료 문肯許 호 가

九月一日過孟十二倉曹十四主簿兄

弟

藜杖侵寒露蓬門啟曙烟 도 트 랫 막 대 로 호

오 니 다 북門 을 새 力稀經樹歇老困撥書眠

빳 디 예 여 는 다 秋覺追隨盡來

士壽卷之三十一

因孝友偏

南一今來孟氏家注重其孝友之偏篤也

나리업수물아노니오고 清談見滋味爾

輦可忘年 孔融이與補衡으로為忘年交

년희무른어루나흔
닛고사피올디로다

過客相尋

窮老真無事江山已定居

窮호는구애眞實
로이리업수니

름외해호아사 幽忘盤柳客至 羅琴書

을된一定호라 幽忘盤柳客至 羅琴書
을深호니닛시스며어리비수물닛고손 掛
오나늘거문고늘며글닐구물마로라

壁移筐果呼兒間煮魚부르매거렛노쿠러

아히블리슬은고기時聞繫舟楫及此間吾를씻거이받노라

廬에대비미야쇼문時로든다니

賓至

患氣經時久臨江卜宅新患氣는南有肺疾也

갈호미時築디나오라니喧卑方避喧卑方避

俗疎快頗宜人수우귀리고避호니

야스모사有容過茅宇呼兒正葛巾잇니

七奇卷之三十一

營茅棟携錢過野橋내세집지우문시름하

그런것다他鄉唯表弟還往莫辭還舅之子

오도다○다론₂을₁한₃오₄직₅表₆弟₇서₈리₉이₁₀
니₁₁오₁₂여₁₃가₁₄문₁₅어₁₆다₁₇하₁₈야₁₉아₂₀디₂₁말₂₂라₂₃

聞斛斯六官未歸

故人南郡去去索作碑錢言為人作碑也

1라₂○故₃人₄이₅南₆郡₇에₈가₉니₁₀碑₁₁
지₁₂은₁₃갑₁₄셋₁₅도₁₆는₁₇가₁₈求₁₉索₂₀하₂₁는₂₂다₂₃本₂₄賣₂₅文₂₆為₂₇活₂₈

翻令室倒懸言其室中이飢餓하니不啻倒

터니도○하지₁보₂로₃히₄어₅荆₆扉₇深₈蔓₉草₁₀土₁₁鏗₁₂

卷之三十一

冷踈烟

蜀人謂釜為鏗
門
人
謂
釜
為
鏗
門
人
謂
釜
為
鏗

老罷休

無賴歸來省醉眠
依賴

醉眠
醉
眠
醉
眠
醉
眠

酬寄

律詩九首

寄題杜二錦江野亭

嚴武

漫向江頭把釣竿
懶眠沙草愛風湍

속절

프레게을아크오라
프
레
게
을
아
크
오
라

莫倚善題鸚鵡賦
何須不著鷓鴣冠

다
다

補衡이作鸚鵡賦하다 鷓鴣하는 鷓鴣鳥하라 鷓鴣賦

鷓鴣冠은 스디 말라 엇데 구티여 腹中書籍幽

時曠肘後醫方靜處者에 赫隆이 七月七日

腹中書籍하다 葛洪이 著肘後要急方하

寂靜하디셔 보듯다 興發會能馳駿馬終

須直到使君灘魚復縣에 有使君灘하니

能히駿馬를 돌여 只애 只

奉酬嚴公寄題野亭之作

拾遺曾奏數行書懶性從來水竹居

拾遺로 일즉두

어긔그를을이오오니게으른性
은從來로문와뎨서리예사노라

奉引濫騎

沙苑馬幽棲真釣錦江魚

騎拾遺以奉引
以奉引

니奉引謂導駕也
只를니모도니幽僻호사로매錦江엇고기

를眞實로 謝安不倦登臨費阮籍馬知禮法

踈謝安호
다登臨費호費酒饌也 阮籍은甫自比호

阮籍은禮法의踈호문어니호니
阮籍은禮法의踈호문어니호니 枉沐旌

麾出城府草茅無徑欲教鉏
旌麾一城府로
나호문금기니

부니 품사리에 길히 업슬 시
히여 품티이 고저호노라

贈杜二拾遺

高適

傳道招提客詩書自討論

詩書러렛나그네詩書론스시로討

論호는다傳호야니루는다

佛香時八院僧飯屢過門

부엇香이時로院에든오중의바보조門으로디나가닛다聽法還應

難尋經剩欲翻

法을듣고도로달당이힌후고經을츠자장翻譯

고저호

草玄今已畢此後更何言

楊雄

大玄經호니라○大玄經草호블이제호미只츠니이後에佐브스말호리오

酬高使君

古寺僧牢落空房客寓居

甫一初到蜀言

니라○넛터레중이드므

故人供禄采隣

舍與園蔬

故人以此禄人必를주고이 雙樹

容聽法三車肯載書

釋書에世尊이在雙樹

經에三車는法시렛는牛羊鹿三車이라○
雙樹入은이에法드로본容納는니세늘

위에큰시루를

草玄吾豈敢賦或似相如揚

이每作賦에擬司馬相如는나甫一謂著
書則不敢이어니와為賦則或能耳니라○

大玄經草호문내엇데구티여
호리오賦호시후相如호라

早發湘潭寄北負外院長

韋迢

北風昨夜雨江上早來涼

北風에어젯바
미비오니문

우회일서늘楚岫千峯翠湘潭一葉黃

潭

縣이屬潭州호다○楚人밧부리호즈문
峯이드르고湘潭엔호니피누르렛도다

故人湖外少白首尚為郎

故人이문
귀저그니센어

이리예오히러郎相憶無南鴈何時有報章

서르스랑호매南으로올그려기업
스니어느지귀알을글위리이실고

酬韋韶州見寄

養拙江湖外 朝廷記憶疎

江湖人박기외疎

니朝廷에서記錄하야

深慙長者轍 重得故人書

人書

上句는言無人이見過也기라니長者의슬윗자최론기피붓그리다니다시

故人의書信

白髮絲難理 新詩錦不如

上句

自謂오下句는義韋詩하다○센머리는

雖無南過鴈 看取北來魚

비록

으로올고기른보리라

杜貞外兄垂示詩因作此寄上 郭受

新詩海內流傳因舊德朝中屬望勞 新詩舊德

은 밤指南하다 ○ 새그를海內에서 流傳호문 이 처하느니 옛德을 朝廷人 안해서

브터 브라오문 郡邑地卑饒霧雨江湖天

闊足風濤 와운싸히느가오니雲霧와비

리리엇공거 松醪酒熟傍者醉蓮葉舟輕

自學操 기범指南也 1라○松醪酒1의

葉 비가비압기든스 春興不知凡幾者

詩卷之三十一 十六

衡陽紙價頓能高

言傳寫南詩而紙價為之貴也

衡陽紙價頓能高 衡陽紙價頓能高 衡陽紙價頓能高

酬郭十五判官

才微歲老尚虛名 卧病江湖春復生

是年春復生 湖是年春復生 湖是年春復生 湖是年春復生

關心詩總廢 花枝照眼句還成

關心詩總廢 關心詩總廢 關心詩總廢 關心詩總廢

能星隕自得隋珠覺夜明

宋人愚人以為寶

라하니라左傳에隕石于宋五하니隕星也
1라隋珠는隋侯의夜明珠也1라南1以

二石으로比其詩而隋珠로比郭詩하다
오직燕人들과호가지라能히벼리던듯하

니스식으로隋人구스를어
러夜明珠인말아노라喬口橘洲風浪促

繫帆何惜片時程喬口橘洲는皆衡荆之地
니此는欲郭之來訪也1

라○喬口와橘洲에비근맞물거리조비니
빛듯큰뒤여시엇테片時엇핀흔앗기스노

酬別杜二

嚴武

獨逢堯典日再覩漢官儀書序에堯1遜
位于舜하야作

堯典이라하고光武紀에今日에復見漢
官威儀호라하니此는言代宗之立하다

○ 言 是 堯 典 入 于 則 矣 未 效 風 霜

○ 言 漢 官 入 威 儀 則 矣 未 效 風 霜

○ 言 無 松 栢 之 節 也 未 效 風 霜

○ 言 風 霜 未 效 矣 未 效 風 霜

○ 言 風 霜 未 效 矣 未 效 風 霜

○ 言 風 霜 未 效 矣 未 效 風 霜

○ 言 風 霜 未 效 矣 未 效 風 霜

○ 言 風 霜 未 效 矣 未 效 風 霜

○ 言 風 霜 未 效 矣 未 效 風 霜

戶 曙 漏 拂 千 旗 並 向 殊 庭 謁 俱 承 別 館 追

追 言 會 秦 關 拾 遺 時 事 言 千 旗 也

旗 一 言 萬 戶 也 言 千 旗 也 言 殊 庭 也

斗 城 憐 舊 路 鍋 水 惜 歸 期 長 安 城 是 號 址

至 譙 言 兄 弟 駐 馬 澗 水 言 也 言 書 鞭 以 賦

言 此 言 借 言 與 南 別 也 言 斗 城 也

벧길 흘스랑코 錫水에도 峯樹還相伴江

雲更對垂 비햇남도로서르번고

다 試回滄海掉莫妬敬亭詩 敬亭이在宣城

一作敬亭詩니라 滄海옛비출비

是書應寄無忌酒共持 당오직이書信을남

를 다 못디디 말니던 但令心事在 未肯鬢毛衰

오직모으엇일로히여두고귀민터리 最

悵巴山裡清猿惱夢思 武自註昔會秦

하노라 ○巴山人 소위 문근 나비 허 벗
사랑 호 본 어즈 러 유 틀 안 직 슬 노라

惠貺 古詩一首 律詩三首

太子張舍人遺織成褥段

客從西北來遺我細織成소니西北으로 조

시 일 유 다開緘風濤湧中有掉尾鯨此聯與

皆叙織段之紋하다 ○ 열 근 기 슬 여 로 나 비

개 잇逶迤羅水族瑣細不足名이 나 비 위 렷 는 나

후 터 근 기 는 는 히 일客云克君褥承君終宴

卷之三十一
一

榮소니바디모드록빛나문承奉하노라그디

空堂魑魅走高枕形神清言鬼神也驚駭此

의魑魅누우니몸파모패모도다領客珍

重意顧我非公卿전소아로내모문도라보너

公卿이아留之懼不祥施之混柴荆言此物

柴荆之門文야不相稱也라어를위두

다르服飾定尊卑大哉萬古程言尊卑服用이

甫一卑賤故도不受錦段也라○服飾이

士詩卷三十三

라來瑱이為襄陽節度使
死_고시나라○李鼎이岐陽에서주구문眞
實로驕貴一盈滿호로베오來瑱을절로
주구을주사도氣運이豪華코兵을이들서

昔聞黃金多坐見悔吝生奈何田舍翁受

此厚貺情田舍翁은南이라○베드로니黃

보나이_니카_하니_엇데바_田舍_엇한아_錦鯨_卷
비노이_厚히_주노_브들바_드리오

還客始覺心和平錦繡잇고래를거더소는

호로라비_릿振我鹿席塵媿客始蒸羹나네곤닷

깃드트를벼러안치고소닌도
타랏羹이구문붓그리노리

孟倉曹一步趾야領酒醬二物滿器야

見遺老夫다

楚岸通秋袞胡床面夕畦楚入 두 들 게 마 차

오나논胡床글나젓반이러을面호야노호라藉糟分汁滓麩醬落

提携藉糟也以茅로覆藉而涉之호야分汁

자바다가다여논도又醬은飯糲添香味朋來

有醉泥구근바배다몬아시터으니번

理生邦免俗方法報山妻言酒醬造法은라

사를 일다스료물미느
俗을免호리
方法을외헛겨잡터브
리알외노라

寄韋有夏郎中

省郎憂病士書信有柴胡

謂韋郎中
之病也
柴胡

藥也
一가○
省郎이
病호士
론시
름

飲子頻

通汗懷君想報珠

言柴胡
一可煎
高飲子
也

子
一조
代이
스
우
사
나
나
그
디
르
親知

天畔少藥餌峽中無

親히
아
는
버
더
하
고
峽中

에
업
드
다歸楫生衣卧春鷗洗翅呼

甫
一
未
得
歸
生

蒼衣而卧 不用也 一라 〇도라 갈비춘
오시 나 누 옛 고 몫 은 여 기 노 논 게 른 싯 고 우

다 〇 猶聞上惡水早作取平途 一라 〇도라 갈비춘
아 가 문 으 히

려 드 노 나 평 호 길 萬里皇華使為僚記 〇도라 갈비춘
아 가 문 으 히

詩에 皇皇者華 遣使臣也 一라 〇도라 갈비춘
아 가 문 으 히

腐儒 〇南 一라 〇萬里 〇옛 〇皇華使 一라 〇도라 갈비춘
아 가 문 으 히

謝嚴中丞送青城山道士乳酒一瓶

山瓶乳酒下青雲氣味濃香辛見分 〇도라 갈비춘
아 가 문 으 히

프 른 구 롬 서 리 로 셔 〇도라 갈비춘
아 가 문 으 히

문 거 이 〇도라 갈비춘
아 가 문 으 히

은一定호양지업스니라人生애世間애이
셔모드락호르라호이도아니한베로다

離別重相逢偶然豈足期서회엇다기다치

是히그리호디위어느
送子靖秋暮風物長年

悲니그디를몬근모우나조회보내다豪俊貴

勲業邦家頻出師而國家一頻出師在伐也

시니니揚監은正宜勉力호야以立功也

相公鎮梁益軍事無子遺子遺

軍中에舉無遺策也이라○相公이梁益에

鎮^하시^나나^{軍市人}이^도다^리저^{解榻}再見^{今用才}

復擇^誰待^{徐釋也}相公^이待^{揚監}을^如陳蕃^之解榻

하^야송^揚監^而擇^誰乎^리오^榻를^우를^문

리^오히^況子^已高位^為郡^得固^辭하^아位^이나

리^푸니^마을^하오^문시^難拒^{供給}費^請哀^漁奪

私^如漁^然하^니揚^監은^宜慎^之나^라○^{供給}

請^하도^았는^私情^을슬^피니^기라^나下^文未^甚

息^紀綱^正所^持紀^綱을^正히^가저^슬디^나라

上卷之三

三

泛舟巨石橫登陸草露滋山門日易夕當念

居者思 此는 言入蜀道路之險難 亦亦 勉

其行也 大 居者는 甫 自 諳 니라 益 以 慎

위 가 애 큰 돌이 빗고 무르로 올가애 프

렛이 스 리 처 셋고 山門에 히 수이 나 조히 드

湘江宴餞裴二端公赴道州

白日照舟師朱旗散廣川 분 必 히 빈 옛 軍 師

羣公餞南伯肅肅秩初筵 南

해 근 旗 노 너 분 나

은道州 一 為南邦伯이라 肅爾은 敬也이라
○ 群公이 南伯은 餞送하느니라 嚴肅히 처엄

次第로 아가 鄙夫奉末眷佩服自早年 夫鄙

正南이라 ○ 더러은 노미 그릿 眷顧하느니라
承호니 그디를佩服호요 처은 히 브레니라

義均骨肉地懷抱罄所宣 弟之親也이라 ○
謂義如兄

義 一 아오 파 큰 온 사 해라 盛名富事業無取
음배 퍼느 오 돈 다 하 노라

媿高賢 高賢也이라 ○ 盛호일 후에 事業이
言立功業야 以著盛名而無愧於

하니 高賢의 게 북그러 不以喪亂嬰保愛金
우를 取타 아를 디 나라

石堅 言不以嬰於喪亂而喪其名 節호고 宣
保之 若金石之固이라 ○ 喪亂호로

上卷之三十三

버버드리디 말오외외 들
計拙百僚下氣蘇

君子前此江南自謂라○百僚人아래서
하야도이踈拙호나氣運이君子의

會合苦不又哀樂本相纏심도다쇼라
심히오라

交遊颯向盡宿
다아나공니늘프머슬기우

昔浩蕤然사피야노고시루이衰颯호아업
스메向호니테사피탄이리키아

從觴激百慮掩柳淚潺湲어슬잔보아
구에문

熱雲集曛黑
헤아도이니르와다나느나그

關月未生天더운구루이나췌어드운뒤로
두난이즌드리히늘헤나디무

도^하다^아 白團[○]為我破華燭蟠長烟[○]白團[○]是肩也[○]

나^하를[○]為[○]하[○]야[○]하[○]니[○]빛[○]다[○]鵒[○]鶻[○]催[○]明星[○]解[○]袂[○]

從[○]此[○]旋[○]鵒[○]鶻[○]은[○]求[○]鳥[○]也[○]라[○]鵒[○]鶻[○]鳥[○]也[○]

가[○]브[○]티[○]도[○]라[○]上[○]請[○]減[○]甲[○]兵[○]下[○]請[○]安[○]井[○]田[○]求[○]念[○]病[○]

渴[○]老[○]附[○]書[○]遠[○]山[○]巔[○]病[○]渴[○]老[○]江[○]南[○]一[○]니[○]望[○]寄[○]書[○]

디[○]甲[○]兵[○]을[○]덜[○]오[○]아[○]래[○]로[○]請[○]호[○]티[○]井[○]田[○]을[○]便[○]安[○]

히[○]갈[○]에[○]하[○]고[○]省[○]渴[○]人[○]病[○]호[○]는[○]그[○]날[○]기[○]리[○]스[○]당[○]

陪[○]章[○]留[○]後[○]惠[○]義[○]寺[○]餞[○]嘉[○]州[○]崔[○]都[○]督[○]赴[○]州[○]

中軍待上客令肅事有恒中軍은 主將이니

客은 指 崔 都督이라 ○ 中軍이 노 平 소 논 기
들 유 나 法 令이 嚴 肅 하 야 이 리 던 달 호 미 잇

도前驅八寶地祖帳飄金繩寶地는 指 僧 寺
라 祖 饑 之 地

예 設 帳 幕 日 祖 帳 이 라 釋 書 에 琉 璃 為 地 고
有 八 交 道 하 나 黃 金 為 繩 이 나 라 ○ 알 된 도

라가 노 사 름 이寶地에 드南陌既留歡藥

山亦深登南 阜 두 들 게 서 하 마 어 으 리 養 樂
하 고 이 외 해 任 기 피 登 臨 하 드 다

清聞樹抄磬遠謁雲端僧몬 은 소 리 란 나 못
그 옛 磬 子 들 드 르

리 로 소 니 구 른 그 잇回策匪新岸所 攀 仍 舊

중 을 어 리 와 보 듯 다

藤言所行岸所攀藤이皆舊所見也이라

잡노거시치조로로耳激洞門颯日存寒谷米

기엔洞門엿비구미나르완고出塵闕軌躡

卑景遺炭蒸드트레나슬윗자최김스위나

다求願坐長夏將衰棲大乘釋書에如來教

이나此노指言僧寺하나라오기리願호디

棲止하노라와고羈旅惜宴會艱難懷友朋내로

難애버들스람하노라고難勞生共幾何離恨

土寺卷之三
三六

不言卷三十一
三十一

兼相仍의논아니한人生애在어희노라니
미안조마만고여희요엇슬후
조차서크지즈는다

別蔡十四著作

賈生慟哭後寥落無其人賈誼上疏曰可為
다○賈生이설위운後에드

다○賈生이설위운後에드
안知蔡夫子高

義邁等倫蔡夫子이노균義
무레니무글어느알리오獻書謁

皇帝志已清風塵皇帝는肅宗이라○그를
을이○고皇帝를보이오

나쁘데흐마風塵은
문기고저하니라
流涕灑丹極萬乘為酸

辛 하므를 흘려卍極에 선 리 나라 남 天地則瘡

瘡朝廷多正臣 天地 옛사극의 혈므나朝

異才復間出周道日惟新 言肅宗이得養著

之治나라○奇異호지죄선섯거나 使蜀見

知己別顏始一伸 蜀애브리여와 몸알리를

호번되 主人薨城府扶觀歸咸秦 言著作이

使郭英又靈櫬 靈櫬 咸京也 扶持 하야咸秦

으로다가 巴道此相逢會我病江濱 巴山人길

杜詩卷之二十二 二十七

서르야조브니야초가나
念鳳翔都聚散

俄十春
南一必與蔡로昔相會於鳳翔也

我衰不足道但願子意陳稍令

社稷安自契魚水親
蜀先主曰吾之有孔

라此호호
孔明으로此蔡也이라○내의衰

그릿바들베피셔기社稷
로히이便安게

我鮮消渴甚敢忘帝力勤尚思未朽骨復

觀耕桑民
내비륙消渴人病이甚하남그

즈리 아오히려스랑호디내
야셔반갈여누어치노百姓
예석디아나호
을보고저호

라노積水駕三峽浮龍倚長津
徑處一라○답
言蔡의乘舟所

고사호三리三峽에마르
고龍이긴논의지엇도다
揚舫洪濟間仗

子濟物身
의물거리치노모문
의物거리치노모문
依仗호는

다鞍馬下秦塞王城通北辰
陸호나라北辰
下秦塞호言出

러호指帝居호다○鞍馬로秦塞로
가면王城은北辰에通호나라
玄甲聚

不散兵父食恐貧
言雀野이殺英义而蜀中
玄甲은鉄甲也一라比호

이亂也一나라○거문甲이모다
호나兵卒이오라바비貪乏호
가전노라

窮谷無粟帛使者來相因若憑南轅使書札

到天垠

窮谷天垠山指夔州一此是冀著
作憑南來使而寄書信也

기은 외고래 조과 김패업 건아 료使者 오
물서르 因하 나萬一南녀 크로 슬위 타오

노使者 료브 티연 클위
리하 ㅎ 마에 오리라

送高三十五書記十五韻 高適이以封
丘尉로為河

西節度使哥舒翰
의書記하나라

崆峒小麥熟且願休王師 崆峒山이在臨洮
하나라言수麥이

也正熟하나라願休兵하야使邊民으로得獲麥
하나라○崆峒개 밑하나라 님그軍

師아願아請아公問主將焉用窮荒為何

必用武窮荒無用之地而使民妨農이請호호도그디호主將이무르라아데버곰

窮荒호飢鷹未飽肉側翅隨人飛官薄而赴

翰幕職호다호주린애고기름바브르러디

高生跨鞍馬有似并州兒并州一逼近羌胡

馳射호并州人아히호도다脫身簿尉中始

典樞楚辭尉尉호主撫楚有罪者也上라호

借問今何官觸熱向武威答云一

正詩卷之二十一

二十九

書記所媿國士知豫讓曰智伯以國士로

제묘對答하야로더위로다말어武威로向하

하바하國士나라人實不易知更須慎其儀

은適이雖蒙國士禮遇나常慎其威儀

야無恃才而失禮於主將也나라○사

미任모로매그威儀를삼갈디나라十年出

幕府自可持旌麾라○열히에幕府에사나

면스가디로可히旌此行旣特達足以慰所思

也이나라○이티어하야特達하리나是可

才言卷之三十一
三十一

男兒功名遂亦在老大時

男兒功名遂亦在老大時

一涯又如參與商
參商二星 中腸悲

此人之別離
此人之別離 中腸悲

嗚鵲不得相追隨
嗚鵲不得相追隨

鴉鵲
鴉鵲 嗚鵲不得相追隨

黃塵翳沙漠
黃塵翳沙漠 念子何當歸

邊城有餘力
邊城有餘力 早

古詩卷之三十一

히城堡에按
察케하노다
使我不能飡
令我惡懷抱
히날로

能히밤먹다
能히이곳게
能히날로
若人才思闊溟

漲浸絶島也
言才思之闊大
知滄溟之漲
也이라○이큰호
사리문才思

어위크나바
면셔물조맛
樽前失詩流
塞上

得國寶
樽前失詩流
塞上

皇天悲送遠
雲雨白浩浩
皇天이 먼
의보내

東郊尚烽火
朝野色枯槁
西極

柱亦傾如何
正穹昊
朝野色枯槁
西極

고西控久기동이任기우렛
니엇데하야하늘호고티려노

送樊二十三侍御赴漢中判官

威孤不能孺自茲無寧歲易에孤矢之利로

나玄宗之未애武備皆弛는是不能以
孤矣로威天下야祿山이乘隙而反也

나라오므의의운화를能히사울였다몬호
니이러호므로브티度安호히업도다川

谷血橫流豺狼沸相噬豺狼은禽盜賊이라

기호르르고豺狼이북天子從北來長驅振凋

피여서르르너호숫다敵天子凋敵호물니르와드시頓兵

岐梁下却跨沙漠裔

沙漠은 指漢中郡이라 謂蕭宗의 自靈武移兵

鳳翔而跨歷漢中諸郡也 岐梁아래 兵馬로 用을 위하 沙濱人 岐梁아래

二京陌未收四極我得制

二京은 洛陽長

安이라 四極은 猶四方이라 四極은 四極은 우리시러 四極은 우리시러 四極은 우리시러

蕭索漢水清緬通淮湖稅

言淮蔡荆湖人 賦稅은 漕運漢

水은 汴 洪軍需也 淮湖은 賦稅이라 淮湖은 賦稅이라 淮湖은 賦稅이라

使者紛星散王綱尚旒綴

紛星散은 分遣 使命于諸郡也

旒綴은 言其危而欲絶也 網紀는 網紀는 網紀는

히려旗人발도
南伯從事賢君行立談際伯

은措漢中主將이오從事호措判官也
南伯의從事이오디니그디셔셔말하노

가뜻이셔나
坐知七曜曆手畫三軍勢星이為

七曜也
나리호美判官之明天文善兵法

三軍人말지름
氷雪淨聰明雷霆走精銳氷

이조호호호聰明銳이오雷
幕府較諫官朝廷

無此例至尊方肝食仗爾布嘉惠
幕府에諫官은그치

보내논朝廷에이예업건아로至尊이비아
호로肝食하실치니를依仗하야아름다온

리	三	下	吾	采	야	對	博	외	비	도	幾	히
矣	를	淚	神	아	리	호	博	외	籩	다	에	이
다	을	言	器	리	矣	미	達	도	筍	發	은	물
空	하	九	를	로	다	두	文	타	一	法	기	議
洞	려	廟	고	소	經	려	不	天	應	五	시	論
地	지	一	티	니	綸	은	沉	對	對	十	니	하
無	무	為	리	足	皆	것	於	如	對	家	하	야
軸	외	賊	로	히	新	그	古	轉	對	爾	니	지
青	니	所	다	어	語	유	書	丸	如	腹	르	라
海	금	焚	어	宗	足	리	也	踈	轉	為	와	請
天	파	也	라	廟	以	호	一	通	丸	篋	다	야
軒	臣	一	○	尚	正	호	라	畧	踈	筍	하	논
輕	下	宗	宗	為	神	다	○	文	○	兵	하	는
西	다	廟	廟	灰	器	다	다	字	字	法	고	書
極	하	一	一	君	器	이	다	謀	謀	니	는	로
最	하	一	一	臣	器	리	다	智	智	네	들	하
瘡	하	一	一	俱	器	다	다	智	智	네	들	하

社詩卷之三

三五

瘼連山暗烽燧北嶺山在西北言西

在東言東方如車之軒輕言不安

定也라○峯峒안서히軸이엄스여靑海

大布衣籍卿佐元帥帝분사르아너를籍賴

고야元帥를坐者清流沙所以子奉使서안자

沙스너키몬고몬보리라씨歸當再前席迺

遠非歷試前席은用賈誼事하니見前註

다○도라오면반다기다씨미아나가須

存武威郡為畫長久利모로애武威人

利호몬為孤峯石戴驛快馬金纏纏외로윈

돌히엇노驛에해문다黃羊飫不羶盧酒잇부릿

多還醉黃羊은野獸述河西人所有也

고黃羊酒노해어그면도로醉호니라

躍常人情慘愴苦士志言常情은天子人

榮이오志士노顔色慘澹以為憂니라

의쁘다니라安邊敵何有反正計始遂

三六

便安게 京면 敵人 이어느 이시리 오
正에 도라 팔 혜유 이 비릇이 뜻다 오
吾聞駕

鼓車不合用 騏驎龍吟回其頭 夾輔待所致

光武時에 異國이 驍名馬 未句는 語駕鼓車
하 나 비亞 一 爲幕職 京다 未句는 言有待於

汝之終當致 夾輔王室也 一 나 라 ○ 나 노드
로 나 몹시 룬 술 위 에 유 멘 騏驎 昨 미 맛 디 아

나 京 나 라 寵 이 이 퍼 서 어 리 룬 도 루 혀 보 누
나 夾 輔 룬 비 모 애 나 르 위 요 문 기 들 우 노 리

送韋十六評事充同谷防禦判官

昔沒賊中時 潛與子同遊 謂祿山之亂 이라
○ 謂 盜賊 亂 이 온

과 뒤 때 더 실 제 마 나 그 티 今 歸 行 在 兩 王 事

有去留

言甫一為捨遺而留也。○이제行在所에도라

어와님곡이이레나다가며 偏側兵馬間主憂急良

籌兵馬入少이에어려이도니니님그미

子雖軀幹小老氣橫九州그그티비록모이져

九州에빛 挺身艱難際張目視寇讐艱難호

모몬싸허나누늘 朝廷壯其節奉詔令參謀

朝廷이그節介를健壯히너더詔命을 參與

駐鳳翔同谷為咽喉西扼弱水道南鎮抱罕

어딘 아촌 아드 리지 죄俊茂 하 니 들
受詞太

白脚走馬仇池頭 太白山은在鳳翔호고仇池는在同谷호니言判官

이受命太白山下而走馬向同谷也
太白山人바래셔 말스물든스외仇池人거

리로 리 들이 늦다 古邑沙土裂積陰霜雪稠 此下是

風俗 음다 ○ 벧 마 올히沙土 비 벧 고 堯父

豪猪靴美兒青兕囊 회 오 아 비 노 글 근 도 티 갖

외갓 오 吹角向月窟蒼山旌旆愁 月窟은指

다 ○ 吹角 호 고 月窟 로 向 호 는 니 鳥驚出死

正詩卷之三

樹龍怒拔老湫

새 놀라 주근 남기 셔는 라나
고龍이怒하야오란 모새셔

싸허나 古來無人境今代橫戈矛

사름 업스

싸히러니이代에 傷哉文儒士憤激馳林丘

文儒士는 指韋評事하다 〇 슬프다 글후는
선비에와 덕이름이니르와다 林丘로 돌여가

中原正格鬪後會何緣由

中原에서正히
사호니後에

모도모어는 百年賦命定豈料沉與浮

百年에준

命이一定하얏나 컷레 且復戀良友握手

步道周자도바어딘버들思戀하야소 論兵遠

整淨亦可縱冥搜遠整淨은言無寇盜之侵

地而遊賞也이라○兵事론議論하야먼뵈고리조커든佐어루冥搜호몬放縱히하리

다題詩得秀句札翰時相投그를서도호句

를時로서르더러보내라

送高司直尋封閣州

丹雀銜書來暮接何鄉樹驂留事天子辛苦

在道路尚書中候에曰赤雀이銜丹書하야

止于昌前이라하다驂留는穆天子人八駿之一이라此는比司直의不遇瑞世之用而處非其位也이라○분근새글워를

驅_驅天子_{天子}를_를 섬_섬겨_겨辛_辛苦_苦로_로이_이 길_길혜_혜잇_잇도_도다_다 驢_驢와_와나_나 조_조히_히어_어느_느 司_司直_直은_은 冗_冗雜_雜호_호니_니 驛_驛

司_司直_直非_非冗_冗官_官荒_荒山_山甚_甚無_無趣_趣 司_司直_直은_은 冗_冗雜_雜호_호니_니 驛_驛

興_興趣_趣 借_借問_問泛_泛舟_舟人_人胡_胡為_為八_八烟_烟霧_霧 興_興趣_趣 借_借問_問泛_泛舟_舟人_人胡_胡為_為八_八烟_烟霧_霧

與_與子_子姻_姻婭_婭間_間既_既 與_與子_子姻_姻婭_婭間_間既_既

親_親亦_亦有_有故_故 親_親亦_亦有_有故_故

萬_萬里_里長_長江_江邊_邊邂逅_{邂逅}一_一相_相遇_遇 萬_萬里_里長_長江_江邊_邊邂逅_{邂逅}一_一相_相遇_遇

長_長卿_卿消_消渴_渴再_再公_公幹_幹沉_沉 長_長卿_卿消_消渴_渴再_再公_公幹_幹沉_沉

系_系屢_屢 系_系屢_屢

公幹의 오란 病 清談 慰老夫 開卷 得佳句

말로는 근 노 문 慰勞하는 니 書時 見文章 士

欣然 淡情 素 以 비 文章 好는 사 려 勿 보 니 伏

枕聞 別離 疇能 忍 漂寓 必 가 예 급 스 려 서 여

히 나 그 내 로 비 보 터 良會 苦短 促 溪行 水奔

注 內호호 모도 미 심 히 저 르 고 恨 르 니 시 熊羆

咆空 林游 子慎 馳騫 熊羆 1 黠 수 프 리 서 우

삼여 가 가 라 西謁 巴中 侯艱 險如 跬步 巴中 侯 州

土寺卷之三十一 四十一

라 ○西人녀크로巴中에諸侯를의라가主
니 艱險호길흔半거름마티녀기늦다主

人不世才先帝常特顧 ○主人은巴中侯이라
別히되니先帝一명상特

援為天軍佐崇大王
別히되니先帝一명상特

法度 謂擢為禁軍副將而特軍이整肅也
라 ○싸혀버야天軍을돕게하신대님

法度를崇 淮海生清風南翁尚思慕 言閩
大古니라

嘗官於淮海而南方父老思其德化也
○淮海에들근바미나니南북늘근차

思慕호오히려公宮造廣厦木石乃無數初聞
림이오호히려

伐松栢猶卧天一柱 言肅宗이再造王室에
宜擢任人才어늘閩州

言肅宗이再造王室에
宜擢任人才어늘閩州

1 猶未見用也 1 라 0 公宮에 서 큰 집 지우
에 나 모 들 히 數 1 업 스 니 처 어 솔 와 잣 파 배

호 물 든 다 니 오 히 려 하 我 病 書 不 成 成 字 讀
호 호 기 동 이 누 옛 도 다

亦 誤 字 內 病 字 야 그 룬 일 우 다 문 호 고 爲 我 問
字 룬 일 위 도 닐 구 매 佐 外 도 다

故 人 勞 心 練 征 成 故 人 은 亦 謂 閬 州 1 라 0
나 룬 爲 호 야 故 人 더 브 러

무 루 더 리 마 0 문 又 가 征 成
호 문 練 習 호 는 다 호 라

奉送魏六丈佑少府之交廣

賢 豪 贊 經 綸 功 成 空 名 垂 賢 豪 1 指 魏 徵 호
다 0 賢 豪 1 經 綸

을 도 오 니 勿 이 일 오 더 호 子 孫 不 振 耀 歷 代
갓 일 후 미 드 려 오 닛 다

皆有之 子孫이니 르와 다 잇도 다 鄭公四

葉孫長大常苦飢 魏徵이 封 鄭公 하니 四

의 四代 옛 孫子 一 여 3 衆中見毛骨猶是

麒麟兒 히도 中에 毛骨을 보니 磊落貞觀

事致君樸直詞 磊落은 高大兒 1 라 魏徵이

라 磊落은 貞觀 2 이 리로 소니 3 家

聲盖六合行色何其微 行色은 指 佑의 老 交

비 合애 두 퍼 5 티 티 가 노 遇我蒼梧陰忽驚會

門家華屋刻蛟螭

此下言交廣繁富也

도나도리니빛난다 至食亞王者樂張游子

悲 音樂은퍼면遊子 侍婢 音樂은퍼면遊子

傾城綃綺輕霧霏 綃綺는거집종은고와城은

기우리허리로노니 掌中 기우리허리로노니

盃行酒雙逶迤 逶迤는酒호문雙雙

기희도다 新歡繼明燭 기희도다

而達曙也 兩 而達曙也

士詩卷之二十二

興終慎賓主儀 처어민放逸히가는興을兼

戒馬閣天宇嗚呼生別離 사호뎃리天下애

어드윳는니슬프다 사라셔여희요미여

別張十三建封 호노 湖南觀察使韋之

晉 이 辟叅謀 호니

嘗讀唐實錄國家草昧初衰劉首建議龍見

高躋踏 草호雜亂이오昧호晦冥이니言天

劉文靜 이 首建議 호야 勸高祖起兵 호니 實錄 을 見 고 草昧 호 處

儻汗血駒爾正指建封也○其不羈之才

이니구즉구즉하야외眼中萬少年用意盡

崎嶇言少年이雖衆이나無若建封者○

峴峴하미다하相逢長沙亭乍問緒業餘乃吾故

人子童甲聯居諸緒業은家世緒業也○

日居月諸라하다聯居諸言相聯袂於日月

也○長沙人亭子에서르맛보아잡간

揮手灑衰淚仰看八尺軀소늘희들어늘근

二二二二二

들샷모물올
위러보노라
内外名家流風神蕩江湖
안과

일흠난집무리로소니
風神이江
范雲堪結

湖人서리예流蕩하야도니
范雲이與王駭로善하
友嵇紹不自孤
梁人范雲이與王駭로善하
다니駭死어늘雲이迎賓

其家하나라嵇康이與山濤로相交하더니
康이臨誅하야謂子紹曰山公이在하니汝不

孤矣라라하니此는南이得交建封하고又
囑其子也이라○范雲은버디라하야相結

하야직하야嵇紹이스시
擇材征南幕湖落

回鯨魚
謂之晉在湖南而辟建封也이라○
征南幕애서材를근히니마근므

리하어늘고래도
載感賈生慟復聞樂毅書
라가듯하노다

新刊言卷之三十一

四十一

定分이 있니 營葛은 본 雖當霜雪嚴未覺

來時節에서 須求하느니라 有歲寒之節也 一라 〇비 枯栢枯 言建封이 有歲寒之節也 一라 〇비 枯栢

의이우루물아디 高義在雲臺嘶鳴望天衢 上 〇비 枯栢 言建封이 有歲寒之節也 一라 〇비 枯栢

노言立功業也 一라 下江以駿馬之致遠으 〇비 枯栢 言建封이 有歲寒之節也 一라 〇비 枯栢

저호애잇느니라 羽人掃碧海功業竟 〇비 枯栢 言建封이 有歲寒之節也 一라 〇비 枯栢

何如 羽人은 神仙也 一라 言當此之際하야 〇비 枯栢 言建封이 有歲寒之節也 一라 〇비 枯栢

也 一라 〇비 〇짓 〇웃 〇니 〇본 〇사 〇루 〇미 〇프 〇른 〇바 〇르 〇래 〇비 枯栢 言建封이 有歲寒之節也 一라 〇비 枯栢

別唐十五誠因寄禮部賈侍郎至

九載一相逢百年能幾何아홉히에흔번서

은能히언마復爲萬里別送子山之阿里佐萬

여히요물하야그티로白鶴久同林潛魚本

同河此는喻與誠로為故舊也라○하鶴

기노그래내本來未知棲集期衰老強高歌

깃기어모다술期約을아디몬흔라○하歌罷兩

悽惻六龍忽蹉跎六龍오日御라○하蹉跎

깃고슬히슬히호니여스相視髮皓白況難

佳義和 謂日月逝矣 歲不我與也 一 〇

어려오미블오미 胡星墜燕地漢將仍橫戈 星 胡

은 菴頭 一 〇 喻安史之賊 〇 되버리 燕 人 將軍 이 지즈로 干戈 〇 븐 〇

다 도 蕭條四海內人少 豺虎 多 蕭條 〇 四海

1 문 적고 豺 虎 少人慎莫投多虎 信 所過 사 〇 근

디 란 상 가가디 말 옥 범 한 디 飢有易子食獸

猶畏虞羅 也 此 노 言 世 亂 애 人 惡 이 甚 於 豺 虎

히 러 과 어 구 미 잇 고 증 성 도 子負經濟才

天門壽峯峩

言天門이 高遠하야 君王이 不知其才也

스릴지 조를 져긴 마룬 하

飄飄適東周來往

若崩波

飄飄히 東周로 가니 오며

南宮吾

故人白馬金盤陀

南宮은 禮部侍郎하야 賈乘白馬故로 比賈至하다 金盤陀는 言鞍上飾也

南宮은 내버디니 金盤陀는 言鞍上飾也

雄筆映千古見賢心靡他

言好賢之 心이 出於

誠一也 라 雄壯호부디 千古애 비취엿

念子善師事歲寒守舊柯

勉唐誠의 盡心事賈

以本言卷之三
四

公_하야如松柏의歲寒不凋而無變易也
니라○念_호은그디노이대스승_로로심_디

히_치위예넷가지_라爲吾謝賈公病肺卧江沱
를堅守_하야시라

나_를爲_하야賈公티브리致謝_호디
肺病_하야江沱에누엇디_라하_라

送韋諷上閬州錄事參軍
也_上官_上官_上

國步猶艱難兵革未衰息
國步_는猶國運이
라○國步_는오_하

萬方哀嗷嗷十載供軍
다_가만_하니사호미
萬方_은哀嗷嗷_은十載_은供軍_은

食_萬方_이食_히수_은위_리니_니庶官_은務_은割_은剥
食_을萬_方이_는軍_食을_是供_給하_는다_니庶_官은_는務_을割_은剥_은

不暇憂反側
官吏_는一_은務_은供_은軍_食하_는야_는唯_은事_은割_은剥_은
官吏_는一_은務_은供_은軍_食하_는야_는唯_은事_은割_은剥_은

剥於民이오不暇念_下民의反

기모를 오앗는吏로히여일로
보터 늦비치업게하리다
必若救瘡痍

先應去蝥賊
蝥賊는害禾稼之虫故로此害
民之吏하다○반드기萬一할

이므우를救恤홀덴몬져당당
蝥賊은업게홀디나라
揮淚臨大江高

天意悽惻
謂傷別也나라○하물스고큰
문디리슈니노포하늘개브디

슬프다行行樹佳政
慰我深相憶
하티여티가도

여내기피서르스
랑호몬慰勞하라

送率府程錄事還鄉酒饌
自註程이推
就取

別
하

鄙夫行襄謝抱病昏妄集鄙夫는甫自謂

將次人늘 구에病을 다常時往還人記一不

識十常時에 가며 오며 하는 사르 묻는 나程

侯晚相遇與語才傑立程侯를 늘 거 서서 호

니 지 되傑 호도 다薰然耳目開顔覺聰明入謂與程

話하 니薰然若耳目이頓開也라薰然

문아千載得鮑叔末契有所及言甫이得程

仲의交鮑叔也라契는交契也라千

上詩卷之三十一

잇노 意鍾老栢青義動脩蛇螫 鍾은聚也 言程侯之

意는如松栢의歲寒에不改其操也 라○此

官之義는如龍蛇의蟄藏其身也 라○此

은늘근자남기퍼러호미모닷고義 若人可

數見慰我垂白泣 이런사르문可히조보

慰勞하느다 告別無淹晷百憂復相襲 晷는

謂無晷刻淹留而即告別也 라○여친요문

도서르다 內愧突不黔庶羞以賙給 不黔突이

은言其貧甚하야不得炊爨也 라○안하

로붓그료디브억곰기그디몬하나를여러

를 앓겨 호마 비 부르거든 소가 도혀 묻스랑
호야 구루에 두워잇는 매든 외야 부르노소
리든 고 짐승 호호
음 켈리 호문 말라

送孔巢父謝病歸遊江東兼呈李白

巢父掉頭不肯佳東將入海隨烟霧巢父

늘 오머머러이 슈물 즐기 디아니 호야 동너
쿠로將次入바라래드러가烟霧를 조 초리

라 호詩卷長留天地間釣竿欲拂珊瑚樹珊瑚

樹 1 生海中石上故로承上入海而言 호니
라 〇 지 온詩卷은 기 리天地人스이에머므

귀러기든 남매로珊瑚남 深山大澤龍蛇遠春

寒野陰風景暮

上句 上句 上句 言巢父之歸 言巢父之歸 言巢父之歸 言巢父之歸 言巢父之歸

은의 파 큰 모 새 龍 파 비 양 패 머 리 나 나 조 히 보 미 서 늘 하 며 미 히 어 드 운 風 景 入 나 조 히

蓬萊織女回雲車拍點虛無引歸路蓬萊

織女 구름 슬 위 를 돌 아 虛 無 引 歸 路 蓬 萊 다 리 를 마 르 터 갈 들 들 혀 가 리 로 다 自 是 君 身

有仙骨世人那得知其故

不知其故也 將歸隱而世人이 骨 이 잇 나 세 間 앓 사 르 문 어 느 시 러 곱 그

惜君只欲苦死留富貴何如草頭

알 리 오 惜 君 只 欲 苦 死 留 富 貴 何 如 草 頭 露 言巢父 輕視富貴호디 如草露之不久

杜詩卷之二十二

아든내음信을무로디이제
엇더흐고하되라니르라

贈李十五丈別

峽人鳥獸居其室附層巔

言民居一如鳥獸之巢穴也

峽中옛사르미새중징그티사느니그지비층층인뫼부리에보릿도다下臨不

測江中有萬里船

아래론기픈그르물디러고가온디느萬里옛키잇

多病紛倚薄少留改歲年

한病에어즈러이브터잇노니

絶域誰慰懷開顏喜名賢

謂喜

得李丈也라○먼그의셔뒤내므○물慰勞하리오느출여러일흙난어단너를깃거

하 노 孤陋忝末親等級敢比肩 言貧賤하야

夫也 一 라 ○ 외롭고 더러워 그 옛 아 ○ 문더
레요 니 베풀어等級은 敢히엇게 를 큰 오 리 아

人生意氣合相與襟袂連 人生애 밝 파氣運

하 야襟袂를 一 日 兩遣僕三日 一 共筵 하릿

두 번 兩 브 리 고 사 ○ 래 揚論展寸心 壯筆過

飛泉 壯하부든느는므리라와님도다 健 玄

成義價存子山舊業傳 子山은 庾信의 字 一

로 比李夫也 一 라 ○ 玄成 의 丘 玄 비 더 잇 不

聞八尺軀常受衆目憐여 들 잣 모 미 長常모

문 든 디 몬且為辛苦行蓋被生事率후 若 큰

문 하 나 사 를 이 리北田白帝棹南入黔陽인 티 가

天北 디 키 서 白 帝 城 北 田 白 帝 棹 南 入 黔 陽

公制方隅迥出諸侯先江 西 國 公 李 勉 時 為

李 夫 也 往 謁 也 一 此 下 至 黃 穎 川 是 皆

니 諸 侯 의 알 皮 아封內如太古時危獨蕭然

封 疆 安 히 太 古 人 적 마 三 니 時 節清高金莖

露正直朱絲絃金莖是承露盤之銅柱也

正直高노포도金莖이스리오다昔在堯四岳

今之黃頴川黃霸為頴川守堯有善政

于邁恨不同所思無由宣言不得同

謂所懷難宣也라○티가말

山深水增波解榻秋露懸謂沂公이禮

隱著之解榻하야待徐釋也라○외가

客遊雖云久亦思月再圓言甫

未言卷之三

志者^하다 ○ 누른 새미 햇 조흔 비브
르 먹 고 모 다 나 라 荆榛은 뒤 오 못 다
今君抱

何恨寂寞向時人 아 이제 그 디 느므 슴 슴 푸믈
아 나寂寞히이 젓사 르믈

句^하老驥倦驤首蒼鷹愁易馴 良驥^하 無伯
樂之知故로

倦於舉首^하 蒼鷹이 飢而附人故로 愁於
易馴^하 나 比 銛之無知音而困貧賤也^하 라

○ 늘근 驥馬^하 이 리 드 로 물 이 처^하 며
프 른 매 수 이 질 드 로 문 지 름^하 못 다 高賢

世未識固合嬰飢貧 서 아 디 몬^하 연진실로

주 으 리 며 가 난 호 매 國步初返正乾坤 尚風

塵 謂代宗이 復京師也^하 라 ○ 國步^하 처엄
正호 매 도 라 오 디 乾坤에 오 히 러 風塵이

다로 悲歌 鬢髮白 遠赴 湘 吳春 슬피 놀아 볼로

吳人 보미어 我戀 岷下 芋君 思千里 尊 千里

人石塘 湖名이라 ○ 나는 岷山 아랫 두라 는

다 生離 與死別 自古 鼻酸 辛 사라 서여 희음

희요 개네로 부르고 하늘 식여 하늘 나라

別董頴

窮冬 急風水 逆浪 開帆 難 窮盡은겨으레비

문져를 거스려 빛듯 여러가마어렵도다 士子 甘旨 闕 不知道 里

士子甘旨闕不知道里

寒甘音는養親之物이라○士子들오맛

다有求彼樂土南適小長安也○士子들오맛

크로은小長安애가갸矯대別我升聲云覺者久

裳單나를여희오비타가나니그의素聞趙

公節無盡賓至歡○趙公은必鄧州守也○賓主의

歡樂은조쳐다已結門閭望無令霜雪殘孫

賈의母曰汝朝出晚來則吾倚門而望

○今董間이離母而往鄧故로囑其早還也○門間에서

○門間에서

와 눈파로 히어 업 **老夫** 纜亦解腕粟朝未飡

老 夫 纜 亦 解 腕 粟 朝 未 飡
노 夫 纜 亦 解 腕 粟 朝 未 飡

라 **飄蕩** 甲兵際幾時懷抱寬 甲兵人스이에

니 어 느 저 기 **漢陽** 頗寧靜峴首試考盤 漢陽

峴首는 適鄧經行之地故로甫 | 欲寄居而
因及之하니라 考盤은 成其盤桓也 | 라○

漢陽은 不모 便安하사히니 **當念** 著白帽採

薇青雲端 甫 | 言我 | 著白帽하야 採薇峴

고 사 리 리 호리니 董은 當念而來 訪也 |

上詩卷之三十一 三十一

分類杜工部詩卷之二十二

此卷詩句甚多，因字跡模糊，難以逐字辨識。其內容應為杜甫詩句之分類，按詩體或韻部排列。可見之字樣包括「...」等，但具體詩句內容因模糊而無法完整抄錄。



